

주눅든 大學, 기 좀 펴려면

林 在 海

(安東大 民俗學科)

대학도 하나의 有機體이다. 살아 생동하는 자립적 형식체로서 생명력을 지니며 살아 숨 쉰다. 대학의 교정과 각종 시설물들이 사람의 ‘몸’에 해당된다면 교수와 학생이라는 인적 구성은 ‘머리’에 해당되고 그들의 의사결정 및 판단은 ‘정신’에 해당된다. 대학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려면 몸도 튼튼해야 하지만 머리도 맑고 명석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정과 시설물을 갖추고 있더라도 거기서 살아가는 대학인의 조직이 활력을 잃고 있으면 몸집 좋은 명칭이나 다름없다. 반면에 대학인들의 활동이 아무리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후지게 되면 반신불수의 천재가 지닌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학이 제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려면 몸을 튼실하게 하고 두뇌가 잘 돌아가도록 영양소를 공급하며 기름도 적절히 쳐주어야 한다. 이 일을 맡아서 해야 할 教育部는 대학의 건강을 위해 영양사 구실과 동시에 기름장이 노릇도 기꺼이 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런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영양사와 기름장이 역할은 교육부의 권위에 걸맞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가 보다.

교육부는 오히려 대학이 主體的 生命力를 갖춘 유기체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계한다. 대학의 생명력이 활성화되면 그들의 권위에 손상이 간다고 여기는 모양인지, 외려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대학의 목에 올가미를 걸기도 하고 대학의 발에 족쇄를 채우기도 한다. 그러니 대학이 주눅들 수밖에 없다. 대학이 각종 올가미와 족쇄로 부자유스럽게 되면 학문의 자유가 손상받고 교육활동 전반이 주눅들게 된다. 아무리 연구업적이 많은 교수라도 정부나 재단의 비리를 공공연히 비판하고 나서면 제임용제도라는 올가미로 밧줄을 끊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이 올가미를 늘 과시하면서 교수들이 객관적·과학적 현실인식보다 주관적·본성적 현실주의에 사로잡혀 있도록 위협을 해낸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올가미를 늘 염두에 두도록 밧줄을 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教授定員制는 교수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족쇄 구실을 한다. 한때 학생들을 학점 따는 일에만 몰두시키게 하려고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였다가, 도리어 학생운동이 더 거세지는 부작용이 일자 폐기처분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제 교수정원제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만 교수직의 정년을 보장한다고 하니, 대학교수로서 마땅히 가야 할 앞길보다는 쓸

데없이 발 밑을 유심히 살피가며 족쇄에 걸려들지 않도록 여러 모로 신경을 써야 할 판이다. 밭줄을 치는 울가미를 피하기 위해서 늘 고개를 움츠려야 하고 발목을 잡아두는 족쇄를 차지 않으려면 발걸음까지 더듬거려야 한다. 고개를 떨구고 아래만 내려다 보고 걷는 이는 제대로 기를 펴고 산다고 할 수 없다. 교수들을 이렇게 주눅들게 해두고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교육의 발전을 되뇌이는 것은 한갓 口頭禪에 지나지 않는 일이다.

비록 교육부가 영양소와 기름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대학이라는 건강한 생명체는 스스로 나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은 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가르치며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보람과 의무로 삼고 있는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인의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도 그 보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일단 전임교수가 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안일하게 세월만 보내면 일정한 주기로 진급하여 마침내 교수직으로 정년퇴임에 이를 수 있다. 1년에 논문 한 편 쓰지 않아도, 10년간 학회에 나가 발표 한 차례 하지 않아도, 정년퇴직 때까지 연구서 한 권 내지 않아도 여전히 교수직을 남들과 동일하게 보장받고 있다. 연구성적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승급이 빠른 것도 아니다. 그런 일에 정열을 쏟아봐야 머리만 더 빨리 세고 몸만 상하게 될 따름이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친 교수들은 뛰다 말고 걸기 시작하거나 걷다 말고 멈추어 쉬게 되고, 제법 일찍 깨친 교수들은 처음부터 걸거나 멈추어 쉬기만 한다. 특히 교수직을 단순한 生業으로 여기고 있는 이들은 교수가 되는 순간부터 드러누워 버리기까지 하여, 걸거나 달리는 이들에게 장애물 노릇까지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드러누워서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을 뒤척이면서 고약한 잠꼬대를 하는가 하면, 더러는 엉뚱한 꿈을 꾸고 그 꿈에 사로잡혀 정치적 수완까지 부리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교수들을 양산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둠으로써, 현실인식의 치열한 비판정신이나 현실문제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실천의 길을 막을 수 있는 다분히 의도된 정치적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문의 길은 제증현상으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요즘의 교통체증 현상처럼 더이상 수술이 불가능한 ‘학문 위기’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대학이 무기력하고 진부한 교육기관으로 대중화되고만 까닭은 교육부가 울가미와 족쇄만 휘두른 탓이 아니라, 당근과 체적을 갖춘 學問的 動力 또한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맥경화증에 빠져 있는 대학을 일깨우려면 두 가지 극약처방을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새로운 운동을 해야 한다. 드러누워서 엉뚱한 꿈을 꾸는 이나 멈추어 선 채 쉬기만 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하고 마침내 달리게 해야 한다. 우선 당근을 들이대며 유인할 필요가 있다. 당근은 동맥경화증에 좋은 식품이다. 研究業績과 力量에 따라 과감하게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의 경과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성과에 따라 진급을 융통성있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진급을 염두에 두고 부지런히 걸을 것이다. 자연히 보수도 경력급에서 능력급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천성이 부지런한 이나 연구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이들은 지칠 줄 모르고 신바람나게 달릴

것이다.

더러는 당근에 관심이 없는 이도 있다.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엉뚱한 꿈 속에 빠진 이는 당근을 아무리 코 앞에 들이밀어도 소용없다. 평생 먹고도 남을 당근이 창고에 가득하고 오직 ‘教授’라는 직업의 사회적 매력 때문에 교수직을 수행하거나 교수직을 이용하여 다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는 당근으로도 그들의 학문적 기쁨은 치유할 수 없다. 이런 이들을 겨냥해서 과감하게 체책을 휘둘러야 한다. 매년 교수들의 연구활동과 학문적 성과를 점검하여 일정한 수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체적으로 경고를 해야 한다. 몇 차례 경고를 해도 여전히 잠에서 깨지 않는 이는 체적으로 쫓아버려야 한다. 정치판에 관심이 있는 정치교수는, 돈벌이에 관심있는 장사치 교수든 그들의 꿈을 찾아 현장으로 뛰어들도록 대학에서 내 보내 주어야 한다. 대학에서 미지근한 태도로 그들의 뒤를 봐주니, 교육자 노릇이든 연구자 노릇이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도 단것만 하면서 교수직을 덤으로 지니고 있는 이가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과감하게 체적질하는 것이 대학을 위해서나 그들의 꿈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일이다.

연구 의무를 복돋우는 데에는 당근과 체적이 둘 다 필요하듯이, 학문활동을 정상적으로活性化시키려면 연구비는 개인별 연구성과에 따라 아끼지 않고 지급하고, 고정적인 보수는 대폭 줄이는 처방도 필요하다. 교수직을 따기만 하면 연구하지 않고서도 대충 中流生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상관없이 사회적 명예나 경제적 소득의 양면에 걸쳐서 ‘웬찮은 일자리’로 인식하고 교수직에 관심을 기울이는 엉뚱한 이가 많다. 基本給을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같은 수준이나 또는 그 이하로 대폭 내려 비리던 아마 경제적 보장을 위해 교수가 되고자 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보수가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그 명예도 平價切下되게 마련이다. 대학이 제대로 살아 움직이려면 보수나 사회적 명예와 상관없이 학문활동 자체가 좋아서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즐기고, 또 자신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 그야말로 진정한 學者들의 집단으로 대학성원이 채워져야 한다. 그런 뜻에서 대학교수라는 일자리가 사회적 명성과 경제적 풍요를 보장하는 ‘따놓은 당상’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보수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돈을 바라고 교수가 되고자 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教育投資를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다. 교육계 일반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표현 가운데 “20세기 학생들을 19세기 선생들이 18세기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비유는 비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니 더 심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국민학교 아이들도 가지고 노는 개인용 컴퓨터 하나 교수연구실에 비치되어 있지 않고, 조그만 점포나 가정에서도 이제 필수품화되어 가는 전송용 팩시밀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대학교수가 연구실에서 컴퓨터와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수집하는 일은 아직 가당찮은 일이라 해야 할 것인가. 게다가 연구실에서는 아직 구식 다이얼 전화기를 쓰고 있으며, 여름철에도 털털거리는 선풍기를 돌려야 한다. 조그만 사기업체에서도 이런 시설 속에서 연구하라거나 사무를 보라고 하면 노조에서 근무조건 개선을 내세우며 항의를

할 것이다. 더 곤혹스러운 것은 교수연구실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책장조차 넉넉하게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답답한 놈 셈 판다’는 격으로 연구를 한층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들은 각자 제 호주머니를 털어 사사로이 책장도 사고 컴퓨터도 들여놓는다. 그럴 형편이 못되는 이들은 동그마니 책걸상 한 벌에 캐비닛과 책장 하나를 연구실 살림살이로 쓰는 게 고작이다. 국민학생들도 교수연구실을 들여다보면 제 공부방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지다.

연구실이 이 모양이니 강의실이나 기타 실험실 사정도 알 만하다. 여전히 백득 하나로 강의를 매우게 마련이다. 대학에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 모여서 땀흘려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나날이 폭주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해석하는 기제가 갖추어지지 못하면 성과가 없다. 머리나 굴리고 입과 귀로 말하고 듣는 정도로는 가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와 첨단 학문의 세계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장의 일꾼들이나 상가의 장사꾼들보다 못한 장비를 가지고 훌륭한 기능사나 경영자를 길러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教授再任用制나 定員制 따위로 대학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이전에 대학의 현실과 교수들의 연구 조건을 온전하게 파악하고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쳐 앞서 가는 대학, 살아 있는 학문활동으로 생기 넘치는 대학이 되도록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수시로 기름을 쳐주어야 한다. 적어도 “特別教育稅까지 별도로 거두어서 도대체 어디에 다 쓰는지 알 수 없다”는 따위의 불평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가장 우수한 인력이 넉넉하게 확보되고 첨단 장비와 기자재들이 대학에 갖추어져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動力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대학은 부정입학이나 과격시위의 온상으로 손가락질당하고, 비만증과 동맥경화증으로 병들게 되어 大學의 生命力は 재기불능의 상태로까지 악화되고 말 것이다. ❀